

**종교적 양심의 내면적 자유와 공공영역에서의  
양심실현: 어거스틴, 아퀴나스, 마틴 루터의  
양심론을 통하여 살펴보는 신앙의 공공성에 대한  
소고**

유경동 (감리교신학대학교)

- I. 들어가는 말
- II.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
- III. 어거스틴의 양심론
- IV. 토마스 아퀴나스의 양심론
- V. 마틴 루터의 양심론
- VI. 나가는 말

---

• ABSTRACT •

---

Inner Freedom of Religious Conscience and Conscientious Realization  
in the Public Realm: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Nature of  
Public through the Thoughts of Augustin, Thomas Aquinas, and Martin  
Luther

Yoo, Kyoung Dong

This paper introduces the issues in relation to the inner freedom of religious conscience and conscientious realization in the public realm, asking the nature of the public through the thoughts of Augustin, Thomas Aquinas, and Martin Luther. In the discussion of the comparison and relationship among the above traditional Christian theologians, such issues surrounding conscience, sin, will, and freedom are engaged to explore the role of religious conscience in the public realm. After reviewing all the factors of the above issues briefly, this paper comes to a conclusion that the Korean Christianity needs to make diligent efforts to bridge the gap between the inner freedom of religious conscience and Christian principles in the public realm. To achieve this goal, Christians are called to cultivate a sense of conscience and morality in the public, to revise the standard of christian education, and to stress spiritual awakening and the reformation of faith.

**Key words:** Religious Conscience, Publicness, Sin, the Education and Practice of Conscience, Practical Spirituality

---

## I. 들어가는 말

만일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에서 종교와 법이 충돌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현 국제 사회에서는 폭력을 유발하는 종교근본주의, 종교이데올로기 간의 충돌과 박해, 그리고 중동지역의 분쟁 등을 통하여 종교의 가치와 국가의 가치 사이의 첨예한 갈등을 보게 된다. 한국의 경우 국가의 헌법적 가치와 종교의 자유 사이에 형성되는 도덕률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양자 간 또는 종교간 충돌은 없지만 안락사, 양심적 병역거부나 종교사학에서의 종교교육, 그리고 동성결혼과 같은 다양한 사안의 성격에 따라서 종교의 가치에 근거한 시민의 자유와 국가의 헌정 질서 사이에서 불협화음이 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편 개신교계 내 제기되고 있는 값싼 은총의 문제와 이와 연관된 크리스천의 도덕과 책임의 문제는 추락하는 교회와 목회자의 윤리문제와 함께 공공성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필자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 글에서 크게 세 가지 문제를 검토하고자 한다. 첫째, 한국 사회에서 말하는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에 대한 관점을 검토하여 보겠다. 법의 판례들을 해석함으로써 내심의 자유에 국한되어 있는 양심과 종교의 한계를 살펴보겠다. 둘째, 기독교 전통 속에서 형성된 양심의 문제를 어거스틴(Augustine)과 아퀴나스(Thomas Aquinas), 그리고 마틴 루터(Martin Luther)의 이론을 통하여 살펴해보도록 하겠다. 이들의 이론을 통하여 종교적 양심과 공공영역에서의 양심실현의 가능성에 대하여 살펴해보도록 하겠다. 그리고 셋째, 이 세 명의 고전적 이론을 통하여 양심의 의미를 현실의 맥락에서 재해석 하고 공공 영역에서의 양심실현에 관하여 제언하도록 하겠다.

## II.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

필자가 이 글에서 주요 주제로 삼고 있는 양심은 도덕적인 내면과 연관되지만 그렇다고 추상적인 영역에 국한되지 않으며 사회 규범과 법질서를 세우는 객관성과 합리성과 연관이 된다. 양심의 자유는 내면적 자유로 이해되기 때문에 신앙과 연관이 되며 이를 기반으로 한 종교적 가치는 기본권에 영향을 미치는 주관적인 공권의 특성을 가지게 된다. 왜냐하면 개인의 내면적 종교의 가치는 사회적 활동과 제도 그리고 공공복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교의 분리를 원칙으로 하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신앙의 양심과 종교적 가치의 영향은 크다고 할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19조에서의 ‘양심의 자유’는 윤리적 내심영역으로서 개인의 소신과 다양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판례는 보고 있으며 특히 외부적인 억압이나 강요가 양심 형성과정에서 개입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sup>1)</sup> 다만 양심이 개인의 인격형성과 관계가 없는 사건은 보호대상이 아니며 개인의 윤리적 판단 또한 국가의 강제에 의하여 양심이 외부로 표명이 되어서는 안 된다.<sup>2)</sup>

양심의 자유는 ‘양심형성의 자유’와 ‘결정의 자유’를 포함하는데 구체적으로 ‘내심적 자유(forum internum)’와 양심적 결정을 외부로 표현하고 실현하는 ‘양심실현의 자유(forum externum)’로 나눌 수 있다. 양심형성과 양심적 결정의 근거가 되는 내심적 자유는 절대적 자유로서 내심에

1) 헌법재판소(헌재) 2002. 1. 31. 2001헌바43, 판례집 14-1, 49, 56. 이하 판례는 다음의 사이트를 참고하였다. <http://www.court.go.kr>, <http://glaw.scourt.go.kr>. 이하 ‘양심과 종교의 자유’에 대한 관점은 필자의 선행연구를 요약하였다. 유경동,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권에 나타나는 생명개념과 종교적 양심에 대한 고찰”, 『신학과 세계』, 감리교신학대학교 통권 제81호(2014년 겨울), 157-177.

2) 헌재 1991. 4. 1. 89헌마160, 판례집 3, 149, 153; 1997. 3. 27. 96헌가11, 판례집 9-1, 245, 263; 1997. 11. 27. 92헌바28, 판례집 9-2, 548, 571.

머무르는 한 그렇다. 한편, 양심실현의 자유는 상대적 자유로서 타인의 기본권이나 다른 헌법적 질서와 충돌하는 경우 법률에 의하여 제한된다.<sup>3)</sup> 따라서 양심의 자유는 개인의 양심이 보호받아야 할 것을 국가에 요구하는 권리일 뿐, 양심상의 이유로 법적 의무의 이행을 지키지 않게 되면 법을 위반하게 되는 것이다.<sup>4)</sup>

한국의 판례에서는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구별하여 양심이 윤리적 도덕적인 사유라면 종교적 양심은 신과 피안에 대한 신앙의 영역으로 정의하고 있다.<sup>5)</sup> 헌법 제20조의 ‘종교의 자유’는 절대적 자유로서 국가가 개입할 여지가 없지만 양심의 자유의 경우 헌법질서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편타당성의 관점에서 살펴보아야 한다고 보았다.<sup>6)</sup> ‘종교의 자유’는 신앙의 자유, 종교적 행위의 자유, 그리고 종교적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구성하는 3대요소를 내용으로 하지만, 현재는 종교적 행위의 자유는 신앙의 자유와는 달리 절대적 자유가 아니기 때문에 질서유지와 공공복리 등을 위하여 제한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sup>7)</sup>

3) 헌재 1998. 7. 16. 96헌바35, 판례집 10-2, 159, 166.

4) 현재는 양심의 자유의 경우, 공익과 관련하여 각 양심에 따른 비례의 원칙을 적용하게 되면 양심을 상대화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양심의 자유의 본질을 훼손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양심상의 결정은 법익교량과정에서 공익에 부합하는 상태로 축소되거나 또는 왜곡된다면, 이는 이미 ‘양심’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다.

5) 재판관 권성의 별개의견이다.

6) 이 사안의 경우 권성 재판관은 인(仁), 의(義), 예(禮), 지(智)와 같은 한국적 가치를 언급하였다.

7) 헌재 2001.09.27, 2000헌마159, 판례집 제13권 2집, 353. 이 사안은 제42회 사법시험 제1차 시험 시행일자 위헌확인에 관한 판례이다. 한 판례의 경우 종교법인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제도의 취지는 종교법인에 조세부담의 경감을 통하여 종교법인의 선교 활동을 촉진시키도록 하는 것인데 법인이 소유토지를 양도하여 양도차익을 얻게 되었다면 법인세와 함께 특별부가세를 납부하는 것은 납세자군의 조세평등주의에 합치한다고 보았다. 헌재 2000. 1. 27. 98헌바6, 판례집 12-1, 42, 53-54. 종교교육에 있어서도 현재는 제20조의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는 종교의 자유를 중시하고 있다. 다만 이 판례의 경우에는 특정 종교단체가 그 종교의 지도자와 교리자를 자체적으로 교육시킬 수 있는 종교교육

지금까지 간략하게 살펴보았듯이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권에 있어서 양심의 자유는 '내심적 자유'로서 제한이 없지만 '양심실현의 자유'와 '종교행위의 자유'는 제한적임을 알 수 있다. 내심적 자유는 절대적 자유이지만, 양심을 실현하는 자유는 공공영역에서 타인의 기본권이나 다른 헌법적 질서를 고려하여야하기 때문에 자유는 제한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과연 전통적 기독교 사상에서 '양심'의 문제는 어떻게 해석이 되었을까? 종교적 양심의 자유가 일반 도덕률을 넘어서 공공영역에서도 양심실현의 장이 형성되어 그 자유가 신장이 되었는지 아니면 제한되었는지 살펴보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본다. 이제 차례로 어거스틴, 아퀴나스, 그리고 마틴 루터의 관점을 살펴보자.

### III. 어거스틴의 양심론

어거스틴에게 양심은 성경해석을 통하여 심층적으로 해석되며 그의 창세기, 시편 주석 및 고백록에서 다루는 영적 여정에 잘 나타난다. 어거스틴에게 양심에 대한 해석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고 보는데 그것은 각각 '경험으로서의 양심', '타락한 양심', '은총으로 회복된 양심', 그리고 '구속의 과정을 거치는 양심'이다.

첫째, 어거스틴에게 양심은 신성을 조우하는 경험의 자리이다. 창세기 3장의 인간의 타락에 대한 주석에서 어거스틴은 양심을 신성을 만나고

---

의 자유를 전제하면서도 교육법 제81조상의 학교나 학원법상에 저촉되어 교육질서가 훼손되는 경우에는 헌법 제31조 제6항의 입법재량에 속한다고 보았다. 헌재 2000. 3. 30. 99헌바14, 판례집 12-1, 325, 337. 한편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선교행위 제한에 대한 위헌청구에서 헌재는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지역에서의 종교 활동에 대하여 제한할 수 있음을 판시하였다. 특히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의 보호가 강력히 요구되는 해외 위난지역인 경우 여권의 사용제한 등과 같은 국민의 국외 이전의 일시적 자유의 제한은 기독교를 전파하는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헌재 2008. 6. 26. 2007헌마1366, 판례집 20-1하, 472, 482.

자기를 판단하는 도덕적 자리라고 설명한다. 아담과 이브는 죄를 지음으로써, 이러한 양심의 자리를 포기했고 진리로부터 숨어버렸다. 특히 아담과 이브가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보다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는 장면을 통해 이를 설명한다. 선악과를 먹고 숨은 아담에 대한 하나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아담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질문을 받는 데, 그것은 하나님이 그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그로 하여금 자신의 죄를 고백하도록 하기 위함이다.”<sup>8)</sup> 이러한 하나님의 질문은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써 포기했던 양심이라는 자기 인식과 판단의 자리로 아담을 다시 초대하는 것이라고 어거스틴은 해석하였다.

둘째, 양심의 타락은 교만과 연관이 된다. 어거스틴은 아담과 이브에게서 교만의 죄를 지적하는데 이때의 교만은 이들의 불순종뿐만 아니라, 자신의 불순종의 원인을 타인에게 전가함으로써 덮으려는 것으로 나타난다. 하나님이 이들의 불순종을 고백할 수 있는 자리로 초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이브는 자신들의 심각한 죄를 자백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인간이 직접 만나는 그 자리를 포기해버렸다. 어거스틴은 이에 대하여 “결국 교만 말고 무엇이 양심의 지성소를 떠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서 외적으로 보여지기를 원하게 만든단 말인가?”라고 반문한다.<sup>9)</sup> 이러한 교만의 죄는 나아가 그 죄의 원인을 하나님께 전가시키는 것으로 확장된다.

교만과 함께 전가의 죄는 아담의 경우 이 모든 죄의 결과를 자신과 여자의 공모로 인정하지 않는다. 공모가 아니라 이 모든 죄의 원인이 여자라고 말미암은 것이며 더 나아가 근본적으로 하나님에게 책임을 묻게 된다. 그는 “여자가 그것을 내게 가져다주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더 구체적으로

8) Augustine, “A Refutation of the Manichees,” 참고로 어거스틴의 창세기 주석은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였다. Augustine, *On Genesis*, trans. by Edmund Hill (New York: New City Press, 2002) 2권, 16장, 24절.

9) Augustine, *On Genesis*, 2권, 5장, 6절. “A Refutation of the Manichees,” *On Genesis*, trans. by Edmund Hill (New York: New City Press, 2002), 39-102.

로 "당신이 나에게 주신 저 여자"라고 단호히 말했다.<sup>10)</sup> 이러한 방식으로 이 불행한 인간은 스스로 교만으로 그리고 교활함으로 나아갔으며 아담의 이러한 책임전가의 행위는 곧 심판자이신 하나님의 자격을 박탈하려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즉, 이는 자기-판단의 실패와 양심의 포기라는 의미하는 것이다.

고백록 10권에서는 어거스틴은 '자기기만(self-deception)'에 대해 다루면서, 한번 희미해진 양심의 자리를 되찾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 설명한다. 어거스틴은 진리에 관하여 영혼 안에 상반되는 여러 동기들을 강조한다. 그는 진리를 묻는 신앙의 여정에 왜 문제가 생겼는지를 고찰하며 그 주된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진 인간들이 진리보다는 다른 것을 더 사랑하기 때문임을 지적한다. 즉 사랑의 대상이 진리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이 믿는 것이 진리이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이렇게 양심은 스스로 속이면서도 잘못되었다는 점을 인정하려 들지 않으며 더 나아가 진리가 아닌 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진리 자체를 싫어하게 된다. 진리의 빛이 비추는 것을 미워하며 인간의 마음에 비추는 진리를 부정하는 과정에서 결국 양심은 침묵하는 것이다.<sup>11)</sup>

어거스틴은 이러한 관점에서 교만의 문제를 '자기 사랑'으로 귀결시킨다. 첫 사람을 향해 던진 "너는 어디에 있느냐?"는 질문은 여전히 모든 사람에게 유효하다. 이 근본적인 질문에 대하여, 개인들은 양심의 자리를 되찾으려 하지 않고, 그 질문을 타락의 실존의 중심에서 숨겨버리고, 스

10) Augustine, *On Genesis*, 2권, 17장, 25절; 창 3:12 참고) Ian Clausen, "Seeking the Place of Conscience in Higher Education: An Augustinian View," *Religions*, 2015, 6, 290.

11) Augustine, *Confessions*, 10권, 22장, 34절. 어거스틴 고백록의 인용은 주로 Augustine, *Confessions and Enchiridion*, newly translated and edited, trans. by Albert C. Outler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55)에서 함.

URL=<http://www.ccel.org/ccel/augustine/confessions.txt>



스로가 진리의 중재자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다. 그리고 심판의 가능성을 위한 조건, 즉 양심의 자리를 거부한다.

셋째, 어거스틴은 양심의 타락은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지만 다시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통하여 회복될 수 있음을 강조한다. 어거스틴에게 처음 인간인 아담과 이브의 타락은 곧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서 인간 스스로 자기 판단과 양심의 기회와 자리를 포기한 것이지만 “네가 어디 있느냐?”는 아담을 향한 하나님의 질문은 여전히 양심을 회복하며 진리를 수용하는 인식론적 공간의 회복이 전제된다.<sup>12)</sup> 따라서 어거스틴은 인간의 실존을 인지하고 비판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양심의 자리를 되찾게 하려는 하나님의 은총을 제시한다. 신플라톤주의적 세계관에 기초하여, 인간이 어디를 방황하든지, 그 목적지가 어디든지, 여전히 인간에게는 진리의 빛이 약하게나마 비치고 있다는 것이 어거스틴의 입장이다. 이 빛에 인도되는 한 그리고 이 빛을 인지하는 한, 어둠이 완전히 인간을 사로잡지 못할 것이라고 그는 확신한다.<sup>13)</sup>

시편 5편 주석에서 어거스틴은 양심의 능력을 영혼이 진리와 지혜, 행복에 이르는 여정에 포함시킨다. 인간은 진리를 향한 여정에 있어서 오로지 하나님만을 믿어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우리를 보시고 그에게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이다. 우리는 우리의 양심, 곧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곳으로 달려가야 한다.<sup>14)</sup> 양심이란 하나님의 위대한 실존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는 그리고 하나님께로 부름을 받는 ‘마음 속의 방(the inner chamber)’과 같기 때문이다.<sup>15)</sup> 이러한 관점에서, 양심

---

12) Augustine, *The Trinity*, trans. by Edmund Hill (New York: New City Press, 1991), 4권 1장.

13) Augustine, *Confessions*, 10권, 22장, 33절.

14) Augustine, *Expositions of the Psalm 1-32* (New York: New City Press, 2000), vol.1, 5권, 11장.

15) Augustine, *Expositions of the Psalm*, 5권, 2장.

은 인간이 소유하는 능력이 아니라, 우리가 자기 자신을 회상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나아가야만 하는 장소이다. 하나님 앞에서 도덕적 자아를 회상하는 과정은 양심의 장소에 다시 돌아가는 과정을 포함하며, 이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양심 안에서, 그리고 양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신다.<sup>16)</sup>

넷째, 회복된 양심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여정은 그 과정이 어렵지만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될 신앙의 목적이며 양심은 이를 지속적으로 깨우쳐 준다. 어거스틴에게 양심은 자기 판단의 근거로서 자신을 꾸짖는 선생과 같은 역할을 한다.<sup>17)</sup> 양심은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이 자신을 그대로 드러내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이다.<sup>18)</sup> 어거스틴은 과거의 죄를 고백하게 될 때 절망에 빠지게 되지만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의 사랑으로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강함을 깨닫는 계기가 된다고 본다. 이러한 고백은 양심을 통해 매일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자비의 소망으로 더욱 확실하게 되는 것이다.<sup>19)</sup> 하나님의 사랑에 사랑으로 응답하지 않고 자신의 사랑만 강조한다면 결국 양심은 사랑을 배반한 자신을 스스로 고발하게 될 것이며 만일 사랑에 응답하지 않는다면 이는 마치 살아있지만 죽음과 같은 것이라고 보았다.<sup>20)</sup>

어거스틴은 특히 양심을 기억과 함께 묶어서, 기억이 진리를 향해 나아가는데 자기 판단의 근거인 양심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어거스틴은 이러한 기억의 작용에 의하여 궁극적으로는 기억의 심상에 새겨진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을 찾고자 하였다. 그는 진리 자체가 되신 하나님이 자

16) Ian Clausen, "Seeking the Place of Conscience in Higher Education: An Augustinian View," *Religions*, 2015, 6, 291.

17) Augustine, *Confessions*, 8권, 7장, 18절.

18) Augustine, *Confessions*, 10권, 2장, 2절.

19) Augustine, *Confessions*, 10권, 3장, 4절.

20) Augustine, *Confessions*, 4권, 9장, 14절.

신의 양심과 의식 안에 계셔서 기억 안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발견하고 기뻐하고 만남을 유지할 수 있다고 고백한다.<sup>21)</sup> 그러나 기억 자체가 하나님은 아니며 기억을 통한 심상의 이미지나 감정, 마음, 양심과 같은 것은 변하나 하나님만이 영원히 초월하여 존재하시는 것이다.<sup>22)</sup> 즉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기억력에 의하여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지 않으며 인간의 기억 유무와는 상관없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sup>23)</sup> 어거스틴은 하나님이 늘 자신의 양심을 판단하며 자신의 마음과 기억이 하나님 앞에 놓여 있음을 고백한다. 하나님이 자신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섭리의 비밀을 알게 하시며 양심을 깨워 자신의 부끄러운 잘못을 깨우쳐 죄를 짓지 않도록 도우신다고 고백한다.<sup>24)</sup>

#### IV. 토마스 아퀴나스의 양심론

아퀴나스에게 있어서 양심은 “지식을 행위로 적용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sup>25)</sup> 그에게 양심은 자연법에 근거한 보편적인 지식으로서 크게 네 가지로 나뉘질 수 있다고 보는데 그것은 각각 영혼의 본질과 연관된 도덕적 본질로서의 양심, 선의 물음에 적용되는 인식행위로서 ‘사려깊음(prudence)’과 연관된 도덕적 덕으로서의 양심, 행위로서의 양심, 그리고

21) Augustine, Confessions, 10권, 24장.

22) Augustine, Confessions, 10권, 25장.

23) Augustine, Confessions, 10권, 26장.

24) Augustine, Confessions, 5권, 6장.

25) Thomas Aquinas, *Summa Theologica*, I-II(1st part of 2<sup>nd</sup> part), 19문, 5-6항, *Summa Theologica*는 인터넷 사이트를 참고하였다.

URL=<http://www.basilica.org/pages/ebooks/St.%20Thomas%20Aquinas-Summa%20Theologica.pdf>. *Summa Theologica*, I-II, 19문 5-6항에서 아퀴나스는 양심을 ‘지식을 행위에 적용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19문은 잘못된 양심의 속박하는 힘에 대해 논의한다. 여기에서 아퀴나스는 ‘사려깊음(prudence)’은 양심의 명령을 수행하는 데에 연관될 뿐 아니라, 행위에 적용된 지식에도 연관된다고 보았다.

이성의 명령으로서의 양심으로 이해할 수 있다.

첫째, 아퀴나스에게, 양심은 특별한 상황에서 하나님과의 영혼의 합일을 적용하는 첫 번째 원칙으로 작용한다. 그에게 양심은 생득적으로 타고나는 도덕적 본질인 ‘신데레시스(synderesis)’와 관련되며 “지식을 행위로 적용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앞에서 어거스틴이 양심을 인식론적 공간 또는 장소로 정의하는 데에 반해, 아퀴나스는 철저히 양심을 인간의 자연적인 지적 능력으로 이성이 아닌 습관과 같은 본성으로 이해한다. 이러한 지적 능력으로서의 양심은 하나님과의 영혼의 합일을 통해 나타나며, 자연적으로 행위의 기본 원칙에 대한 질문 없이도 생득적으로 그 원칙을 이미 인지하고 있는 것이다.<sup>26)</sup> 따라서 신데레시스는 지적인 덕과 구별되며 사색적 원리이면서도 실천적 원리를 구성하는 자연적 습관과 같은 것이다.<sup>27)</sup>

한편, 아퀴나스는 양심이 물리적 행위와는 구별된 영적 행위, 더 나아가 영 자체라 불리는 것을 감안해, 양심의 행위는 정신의 내적 행위로 본다. 구체적으로, 양심의 행위는 항상 그 자체로 남아있지 않으며, 그 원인, 즉 능력과 습관의 형태로 남아 있게 된다. 양심을 형성하는 모든 습관들은 다양하지만, 그것들은 모두 신데레시스라는 제일 원리의 습관으로부터 나온다.<sup>28)</sup>

둘째, 아퀴나스에게 양심이란 선과 악에 대한 인간의 지식을 통하여 인간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적용하는 인식 행위이다. 자연적으로 어떤 행위가 선하고 나쁜지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어떻게 만물이 하나님에 의해 자연적으로 질서 지어지는지, 일차적으로는 인간의 본성이 무엇이며, 인간의 본성에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를 먼저 이해해야 한다. 무엇이

26) Aquinas, *Summa Theologica*, I-I, 79문, 12항.

27) Aquinas, *Summa Theologica*, I-I, 79문, 12항.

28) Aquinas, *Summa Theologica*, I-I, 79문, 13항.

선하고 악한 행위인지를 보여주는 질서가 곧 아퀴나스의 자연법이다. 하나님은 초자연적으로 자신의 의지에 맞는 것 또는 반하는 것을 계시하실 수 있다. 인간이 선하고 악한 행위를 판별하는 기준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계시와 연관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인간의 양심이란 우리가 해야 하는 것, 또는 했던 것이 선하고 악한지에 대한 깨달음이지만, 그것을 실제로 행하고 선택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아퀴나스에게 양심은 옳고 그른 것을 이해하는 행위이다. 올바른 판단을 내리는 미덕은 양심이 아니라, 그 양심을 적절하게 적용하고 실행하는 덕으로서, 사려깊음이다. 일단 아퀴나스는 행위 이전에 인식을 주장한다. 즉, 인간은 무엇이 옳은지 알기 전에는 옳은 행위를 할 수 없다. 따라서 어떤 사람의 양심에 문제가 있다면, 그 사람의 악행에 대하여 도덕적으로 비난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아퀴나스의 관점에서, 어린아이는 아직 양심이 완전히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린아이의 잘못된 행위에 대한 처벌은 불가능하다. 결과적으로 아퀴나스는 인간이 선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완전히 형성된 양심을 가져야 하며, 이러한 양심을 통해 선하고 악한 일에 대해 인식함으로써, 올바른 행위를 할 수 있다.<sup>29)</sup>

셋째, 양심은 인식하는 능력에 머무르지 않고 행위와 연관이 된다. 아퀴나스는 사람들이 양심에 대해 갖고 있는 공통된 생각을 근거로 양심은 능력이 아닌 행위로 정의한다. 만약 양심이 본성적 능력이라면, 인간은 언제나 양심에 따라 선한 행위만을 추구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양심이 모든 행위를 통제하고 규제하지는 못한다. 따라서 양심은 능력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정의되어야 한다. 먼저 양심은 어떤 것에 대한 지식

---

29) Joseph M. Magee, "What is conscience according to Saint Thomas Aquinas, and why is it important?" URL=<http://www.aquinasonline.com/Questions/conscience.htm>.

의 관계를 함의한다. 특히 양심은 개별적 경우에 적용되는 지혜(cum alio scientia)로 귀결되며, 양심이 무언가에 대한 지식의 적용이라면, 이는 반드시 어떠한 행위에 의해 실행되어야 하는 것이 된다.<sup>30)</sup> 따라서 양심은 그 단어의 어원으로부터 생각해 볼 때에 하나의 행위여야 한다고 아퀴나스는 주장한다. 마찬가지로 양심은 증언하고 속박하고 선동하는 동시에, 고발하고 비난하고 고통을 안겨준다. 이러한 의미에서 양심의 작용은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에 대한 지식의 적용이며, 그 결과로 나타나는 행위들을 통해 미루어볼 때, 양심은 지식의 실제적 적용이며 행위이다.

넷째, 아퀴나스는 또한 양심을 일종의 이성의 명령으로 정의하는데, 이는 양심이 지식을 행위에 적용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는 잘못된 이성으로 인해 의지가 악하게 되는지를 묻는 것은 잘못된 양심에 속박되어 있는가를 묻는 것과 동일하다고 본다. 이를 바탕으로 아퀴나스는 양심의 행위를 세 가지로 구분하여 설명한다. (1) 일반적인 선으로서의 양심의 행위; (2) 무관심으로서의 양심의 행위, 즉 선과 악한 행위와 관계없는 것에 대한 판단, 그리고 (3) 일반적인 악으로서의 양심의 행위가 있다. 만약 이성이나 양심이 일반적으로 선한 일을 하도록 명령한다면, 그 행위에는 어떠한 잘못도 있을 수 없다. 마찬가지로 일반적으로 악한 것을 하지 말라고 이성이 명령한다면, 이러한 명령에도 어떠한 잘못이나 실수가 있을 수 없다. 왜냐하면 이성은 선이 무엇인지 진단하고, 그리고 악한 것을 금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무관심의 문제에 관하여, 잘못된 이성이나 양심으로부터 파생된 의지는 그 행위의 대상에 관하여 볼 때, 악하다. 의지의 악함은 의지 자체가 악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의지가 악을 원하기 때문에 악한 것이다. 반면에 만약 어떠한 사람의 이성이나 양심이 그에게 그가 그 자체로 악한 것

30) Aquinas, *Summa Theologica*, I-I, 80문,

을 행하도록 하는 명령에 속박되어 있다고 말한다면, 그리고 그 자체로 선한 것이 금지되었다고 말한다면, 그의 이성이나 양심은 잘못된 것이다.<sup>31)</sup>

따라서 양심이 올바르게 작동하기 위하여서는 도덕을 필요로 한다. 아퀴나스는 ‘도덕적 덕 없이 지적 덕이 있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모든 다른 덕은 도덕적 덕 없이도 존재하지만, 사려깊음(prudence)은 도덕적 덕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 이유는 사려깊음은 인간이 행동하는 것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또는 구체적으로 인간이 한 일에 대한 정당한 합리적 이유를 제시하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인간의 행위에 대한 이유는 보편적 원칙뿐만 아니라 구체적 원칙으로부터 나온다. 행해진 일에 대한 보편적 원칙에 대해서, 인간은 그 원칙에 대한 자연적 이해를 바탕으로 사고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이 악을 행하지 않았음을, 또한 실천적 학(practical science)을 통해서도 이를 인식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구체적인 경우들에 대한 올바른 이유를 제시하는 대에 부족하다. 따라서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보편적 원칙으로서의 학으로서 만은 안 되며, 도덕적 덕이 요청된다.<sup>32)</sup>

예를 들어, “선을 행하고 악을 피하라”와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두 명제가 있다고 하면, 이 명제를 인간이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양심은 훨씬 많은 내용을 포함하는 원칙들, 즉 이차적 원칙들이 요청된다. 아퀴나스는 이러한 이차적 원칙은 사려깊음의 덕을 통한 경험과 교육으로부터 기인한다고 본다. 따라서 아퀴나스에게 양심의 주요 기능은 하나님과의 합일이라는 일반적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며, 선과 악을 구별하는 인식 행위이자 실제 행위를 이끌고, 그리고 사려깊음의 덕으로부터 여러 조건

31) Aquinas, *Summa Theologica*, I-II, 19문, 6항.

32) Aquinas, *Summa Theologica*, I-II, 58문, 5항.

과 환경에 발달된 이차적 원칙을 형성하고 적용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sup>33)</sup>

## V. 마틴 루터의 양심론

어거스틴에게 양심은 책임적 기억과 자기 판단적 근거가 된다면 아퀴나스는 양심을 인간의 자연적 능력으로서 기독교의 가르침에서 신비적인 것들을 제거하고 합리적인 설명을 추구하는 행위능력과 연관된 도덕적 본질로 보았다. 루터에게 양심은 하나님의 은총이 머무르는 인간의 책임적 영역이 되면서도 스스로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여 보려는 인간의 자유의지가 작동하는 불신의 자리이다. 그리고 선행과 믿음이 요청되는 도덕적 영역으로서 율법에서 믿음으로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신을 전적으로 위탁하는 신앙의 자리이기도 하다. 그 내용을 차례로 살펴보자.

첫째, 루터의 주요 저작들을 통하여 살펴볼 때 그에게 양심은 하나님의 은총만을 유일한 믿음의 근거로 인정하여야 하는 신앙의 인식이며 비판적 기능을 실천한다. 루터의 종교개혁 95개 조항이나 이와 연관된 주요 3개 논문, 그리고 그의 설교를 살펴보면 양심은 인간의 선행을 강조하는 당시 가톨릭의 교리에서부터 벗어나 성경에 근거한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야 하는 영적 비판력이다.<sup>34)</sup>

그는 종교개혁 95개 조항에서 당시의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는 무자비

---

33) Douglas Langston, "Medieval Theories of Conscience," *The Stanford Encyclopedia of Philosophy* (Fall 2011 Edition), Edward N. Zalta (ed.), URL = <http://plato.stanford.edu/archives/fall2011/entries/conscience-medieval/>.

34) Martin Luther, *First Principles of the Reformation or the Ninety-five Theses and the Three Primary Works*, trans. and edited by Henry Wace (London, John Murray, Albemarle Street, 1883)



한 전제군주들에 의한 가난한 자들의 양심의 억압에 대하여 폭로한다. “로마에 가까울수록, 주님과는 더 멀어진다(The nearer to Rome, the farther from Christ).”는 경구를 빗대어 순례에 참여하였던 사람들은 “처음 로마에 가게 되면 사기꾼을 찾는 것이며, 두 번째는 사기꾼을 발견하고, 세 번째는 그 사기꾼과 집에 오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구교회와 교황을 비난한다.<sup>35)</sup> 가난한 성직자들이 경제적 곤란으로 성직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때 양심의 괴로움을 토로하는 문제라든지 억지로 하는 금식, 그리고 쥘에 불을 붙이면서 연기나 불이 나지 말라고 하는 것과 같은 비유로 양심과 인간의 본성에 반하는 결혼제도의 금지에 대하여 비판한다. 이러한 당시의 가톨릭의 원리들은 하나님 말씀에 따르지 아니하고 계명에서 벗어나 엉뚱한 것을 추구하게 하는 것이라고 루터는 이해하였다.

이와 같이 잘못된 것을 극복할 수 있는 영적 비판력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총에 의지한 신앙의 자유에 의하여 가능하다. 루터는 인간은 두 가지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고 이해하였다. 즉 영적인 것과 육체적인 것이다. 영적인 속성은 영혼과 결부되어 내적인 새로운 인간을 지향하며, 육체적인 속성은 육의 성질을 가지어 옛사람의 성질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인한 영적으로 거듭난 신앙을 통하여 굳건한 양심을 회복 할 수 있다.

둘째, 루터에게 양심은 공적주의를 강조하는 인간의 행위로부터 신앙으로 돌아서게 하는 행동을 수반하는 인식적 능력이 된다. 인간의 공적에 대하여 루터는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유하게 되는 것이지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님을 강조한다. 인간의 행위 보다는 행위 안에 있는

35) Martin Luther, *First Principles of the Reformation or the Ninety-five Theses*. 이하 루터의 원작들은 다음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검색하였다.

URL=<http://www.ccel.org/ccel/luther/>

믿음이 더 중요하다.<sup>36)</sup> 그렇지 않으면 행위로서 의를 이루려는 잘못된 믿음이 되는 것이다. 특히 칭의(Justification)는 우리의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다. 이 땅에서의 인간적인 모든 행위는 현세적인 목적을 위하여 하는 것이지만 칭의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가능하다. 이 때 믿음만이 양심의 유일한 안식처가 되며 예수 그리스도는 양심의 무거운 짐을 담당하시며 복음과 십자가만이 인간을 양심의 절망과 가책으로부터 자유하게 한다.<sup>37)</sup>

인간의 공적에 대한 루터의 관점에서 양심은 자신의 행위를 주체적으로 판단하는 새로운 인격과 같은 역할을 한다.<sup>38)</sup>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서는 인간의 공적이 아니라 오로지 신앙에 의지하는 것이다. 루터는 구교회가 인간의 불완전한 양심에 과도하게 주목함으로서 크리스천에게 공포를 조장하고 인간 스스로가 자신의 양심을 지키기 위하여 선행(good works)으로 나아가게 한 것은 큰 잘못이라고 비판한다. 선행은 믿음으로부터 오는 것이지 양심이 믿음에 서게 될 때 죄와 사망과 지옥에 대한 공포로부터 자유하게 된다. 특히 당시 가톨릭의 교회건물을 짓는 일이나 아름답게 꾸미는 것, 그리고 순례를 하는 행위들은 비록 교회법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릇된 길로 인도하는 것이며 세상을 더 힘들게 하고 훼손하는 일이며 양심을 불편하게 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신앙을 침묵하게 하며 약하게 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그렇다고 루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의 행위를 전적으로 무익하다고 본 것은 아니다. 루터는 제한적이긴 하지만 금식의 경우를 통하여 육체의 본성을 극복하여야 할 종교적 덕목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다. 만일 육체를 통한 유혹이 너무 강렬하여 저항할 수 없을 경우에 육체의

36) Martin Luther, *Concerning Christian Liberty*.

37) Martin Luther, "Section III. The Comfort of Christ's Sufferings," *Assorted Sermons*.

38) Martin Luther, *A Treatise on Good Works*.

그러한 속성을 제어하기 위하여 금식이 필요하다. 금식의 참된 사용과 그 한계와 열매, 이유와 목적을 생각하지 않고 금식하는 행위는 물론 무익하다. 기도와 말씀, 세례와 성만찬과 같은 신앙적 덕목을 루터는 강조하지만 그렇다고 인간의 양심이 이를 지속할 수 있는 항구적인 능력을 스스로 견비하고 있지는 못하다고 보았다. 결국 선한 양심은 죄의 유혹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지속될 수 있다.

따라서 온전한 믿음에 거하게 될 때 신앙은 인간의 양심을 회복하며 양심은 믿음에 의하여 강화된다. 죄는 양심을 방해하지만 하나님의 진리는 양심을 회복하며 이를 위하여 온전한 그리스도와의 연합인 세례를 통하여 양심은 강해지며 교회 공동체의 자유를 회복할 수 있다. 아울러 성만찬을 통하여 신앙의 양심 또한 그 힘을 회복하며 형제간의 신앙고백 또한 양심을 치료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루터는 보고 있다.<sup>39)</sup>

셋째, 루터는 스킨라철학의 입장에서 도덕과 합리성에 대한 자유의지에 근거한 인간의 능력을 강조하는 에라스무스에 반대하면서 하나님과 악마의 사이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야 하는 이원론을 전개한다.<sup>40)</sup> ‘노예 의지론’에서 루터는 양심에 대한 부정적인 표현으로서 ‘재촉하는 양

39) Martin Luther, *Concerning the Sacrament of Baptism*.

40) Martin Luther, *The Bondage of Will*, Trans. by Henry Cole (London, March, 1823). 루터는 “노예 의지론(The Bondage of Will)”의 서문에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롬10:10)”의 말씀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마 10:32)”는 말씀을 인용하여 양심을 마음의 확신과 신앙의 자리에 두어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벧전3:15-16)”을 통하여 양심은 신앙의 구체적인 책임의 자리까지 연결이 된다.

심(urgency conscience), ‘양심의 심판(judgement of conscience)’, ‘양심의 두려움(peril of conscience)’, ‘양심의 구축(the establishing of conscience)’, ‘유죄를 선고 받은 양심(convicted conscience)’ ‘거짓말 하는 자들의 양심’, ‘죽음과 심판의 고통에 떠는 양심,’ 그리고 ‘양심의 죄’와 같은 것들이 등장한다. 한편, 긍정적인 측면에서 ‘정직한 이들의 양심’, ‘행복한 양심’, ‘선한 양심’,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하여 구속된 양심’을 강조하며 이와 같은 양심의 확신(assertion)을 통하여 신앙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비록 양심이 육체의 소욕에 따를 때는 세상적인 것에 지배되어 고통을 당하지만 육체의 평화와 평안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신앙과, 양심, 구원,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이라고 강조한다.

이와 같이 양심은 자유의지와 믿음이라는 이원론적 구조 사이에서 믿음으로 향하게 하는 신앙의 원리이면서 율법과 복음을 구별하는 또 다른 이원론적 지적 인식의 원리이기도 하다. 루터는 하나님은 두 가지 근본적인 방식으로 인간과 소통하시는데, 하나는 율법이고 다른 하나는 복음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루터의 양심론은 율법과 복음을 구별하는 이중적인 척도가 되는데 ‘대 문답 교리(The Large Catechism)’와 ‘갈라디아서 주석(A Commentary on St. Paul’s Epistle to the Galatians)’을 통하여 잘 드러나 있다. 인간은 율법으로부터 복음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이 때 양심은 이 양자를 이해하는 인식의 틀이 된다. 즉, 양심은 육체의 양심과 은혜의 양심으로 구별되면서 율법에 의하여 육체의 양심이 종속된다고 본 반면, 은혜의 양심은 구원받은 결과로서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된다.

율법은 십계명과 같이, 하나님의 명령으로서 인간에게 부여되었다. 율법은 인간 사회를 위하여 필요한데 이는 율법이 혼돈과 악을 제한하고, 인간의 죄성에 대한 깨달음을 주기 때문이다. 모든 인류는 양심을 통해 율법을 부분적으로 이해한다. 율법은 인간의 죄에 대한 확신을 줌으로써,

인간을 복음으로 인도하지만, 율법이 구원으로 나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길은 아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인류에 주어진다. 복음이란 죄인들의 요구를 용납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에게 은사로서 주어진 것이다. 죄인은 믿음을 통해 그 은사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율법은 끊임없이 인간으로 하여금 잘못된 죄의 처벌이 없음을 줄 알고 또 의도적으로 죄를 짓는 '위반의 죄(sins of commission)'와 잘못된 책임을 방기하는 '생략의 죄(sins of omission)'를 반복하게 하며 양심은 절망에 빠진다. 이 때 복음을 통한 위로와 확신을 통하여 양심은 새 힘을 얻게 되며 하나님 안에서 참된 선함을 발견하고 영혼의 안식을 누리며,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통하여 양심은 기뻐하게 된다. 그러므로 복음으로 회복되는 이들의 신앙적 특징은 죄와 죽음, 그리고 악한 양심으로부터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믿는 것이다.<sup>41)</sup>

복음은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양심의 평화, 그리고 축복을 선물한다. 율법의 행위를 통하여 구원의 노력은 실패하며 이때 율법은 죄와 인간의 양심과 악마와 더불어 하나님의 의에 대적이다.<sup>42)</sup> 주님은 은총은 죄의 사하심과 평화 그리고 행복한 양심을 허락하신다. 그러나 율법은 죄를 드러내며 양심이 공포로 떨게 하며 절망으로 이끈다. 세상의 방법과 수단으로서 양심의 평화를 얻는 것은 불가능하다. 복음이 주는 것은 영적인 은혜인데 죄의 용서와 진정한 의, 양심의 평화, 영생, 그리고 비록 이 세상의 임시적인 것이지만 선한 판단력과 선한 정부, 그리고 평화이다. 복음은 또한 '의의 주입(imputation of righteousness)'을 확증하

41) Martin Luther, *The Large Catechism*.

42) Martin Luther, *A Commentary on St. Paul's Epistle to the Galatians*. 이하 루터의 갈라디아서 주석은 각주를 생략하고 괄호로 루터의 본문 해석을 대신한다.

는데 인간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완전하지는 못하다. 크리스천이란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 이상 죄를 묻지 않는 사람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갈2:16). 이 진리가 양심에 평화를 주는 것이다.

만일 율법이 죄를 주관한다면 진노와 죽음도 주관하는 것이다. 죄가 없으신 분이 죄를 담당하심으로서 우리를 사하신 주님을 의지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양심은 우리를 괴롭힌다. 그리고 죄된 양심이 우리 안에 있는 한 그것은 양심의 고통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주님이 이 모든 것을 감당하신 것을 믿을 때 양심은 자유로워진다. 주님은 우리의 양심의 무거운 짐과 죄를 담당하시기 때문이다.<sup>43)</sup> 율법이 죄를 드러냄으로서 죽음과 형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양심이 인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 십자가에서 죽음이란 죄와 악마, 그리고 사망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죽는 것이다(갈2:17). 진정한 크리스천의 의(righteousness)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이다. 그리스도와 크리스천의 양심은 하나가 되어 자신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만 의지하게 된다(갈2:20).

이제 양심은 전적으로 새로워진다. 하나님의 자비와 그리스도의 약속이 없이는 양심은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 신앙의 양심은 법으로부터 하나님의 약속으로, 죄로부터 신앙의 의로, 그리고 사망으로부터 생명으로 향하도록 한다(갈3:17). 이렇게 거듭난 양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을 의심치 않도록,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이 이 모든 것을 확증하여 주심을 믿고 강하게 훈련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의 힘, 양심, 느낌, 인격, 그리고 행위에 있지 않으며 오로지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다(갈4:6). 양심은 하나님에게 속하기 때문에 주

43) Martin Luther, "The comfort of Christ's Sufferings," *Assorted Sermons*.

님이 양심을 주관하도록 하여야 한다(갈4:7).

이제 도덕법은 단지 인간의 양심을 비난하고 저주하며 판단하는데 그친다. 옛법인 구약의 율법도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는 은총의 양심을 비난할 수 없다(갈4:27). 국가의 시민으로서 크리스천은 양심대로 국가의 법을 따라야 하지만 시민의 자유이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신앙의 자유로 양심대로 살 수 있다. 그러나 진정한 자유란 하나님의 진노를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실제적인 자유로서 이 때 우리의 양심은 자유하고 평안하게 되는 것이다(갈5:1).

## VI. 나가는 말

지금까지 살펴 본바와 같이 어거스틴이 정의하는 양심이란 자기 판단이 벌어지는 상황이나 조건들을 확인하는 과정에 나타나는 자기 인식의 근거라고 할 수 있다. 어거스틴에게 양심은 일종의 ‘담론적 자기 인식(discursive self-consciousness)’으로서, 반성과 숙고를 위한 정신적 영역으로 이해되었으며, 이러한 양심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선하심이 인식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양심은 일종의 ‘책임적 기억(memory in responsibility)’이며, 실천 이성의 장이고, 결과적으로 최종적 목적이라기보다는 형식적 목적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sup>44)</sup>

어거스틴이 양심을 인식론적 공간 또는 장소로 정의하는 데에 반해, 아퀴나스는 철저히 양심을 인간의 자연적인 지적 능력으로 정의하였으며 이러한 지적 능력으로서의 양심은 하나님과의 영혼의 합일을 통해 나타나며, 자연적으로 행위의 기본 원칙에 대한 질문 없이도 생득적으로 그 원칙을 이미 인지하고 있는 ‘도덕적 본질(synderesis)’로 이해하였다. 이를 근거로 아퀴나스는 선(good)의 물음에 적용되는 인식행위로서 사려깊음

44) Oliver O'Donovan, *The Ways of Judgment* (Grand Rapids: Eerdmans, 2005), 302.



과 연관된 도덕적 덕과 행위, 그리고 이성의 명령으로서의 양심론을 전개하였다.

루터는 양심을 ‘율법의 속박에 묶여 있는 양심’과 ‘율법으로부터 자유하는 양심’이라는 이분법적 구조를 가지고 철저하게 인간의 공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지하는 양심에 대하여 논한다. 루터의 양심은 어거스틴이나 아퀴나스의 관점과 비례하여 수동적이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은총에 의하여 새로워진 양심은 오히려 선한 행위의 근거가 되며 믿음과 행위, 양심과 책임의 차이가 없는 실천이 강화된다.

물론 위의 각 양심론에 이론적 약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어거스틴의 경우 양심은 인간의 자기기만을 인식하고 책임적인 회개의 자리에 나서야 하는 원리이지만 이를 회복하기 위하여 자칫 하나님의 전적인 은총에 의지하게 될 때 수동주의나 정적주의의 빠진다는 한계가 있다. 아퀴나스에게 양심은 도덕적 본질로서 옳고 그름의 인식적 행위를 통하여 선과 악을 추론할 수 있는 양심의 행위를 강조함으로써 도덕적 일원론을 제시하였지만 인간 이성의 한계와 양심을 지속적으로 교육과 훈육에 의하여 강화하여야 하는 덕론을 염두에 둘 때 자칫 자연법적 우선원리가 인간 도덕법의 수준으로 격하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루터는 양심의 자유를 주장하였지만 공적주의에 대한 비판 때문에 자칫 개인주의적 양심에 머물러 각 개인의 양심이 구체적으로 공동체 속에서 어떻게 다양하게 조화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서는 대안이 불분명하다.

그러나 위의 각 양심론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진정한 기독교신학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하여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드러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구하는 것이라고 할 때, 양심이 죄 때문에 혼돈에 빠져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권세와 지혜 그리고 위엄을 통하여 잘못된 양심을 회상하고(어거스틴), 도덕적 본질을 회복하며



(아퀴나스), 그리고 자유하는 종교적 양심으로 선한 행위를 회복(루터)하는 관점은 우리시대에 꼭 필요한 것이라고 본다.

서론에서 살펴보았듯이 현실 속에서 종교의 자유와 양심은 내면적 자유에 국한되어 있다. 종교적 양심의 자유가 현실 속에서 실현되기 위하여서는 개인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에 따르는 것이 원칙임을 루터는 강조한다(롬13:5). 그러나 우리는 신앙의 양심은 율법이나 도덕법의 규제를 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 종교개혁 전통임을 확인하였으며 아퀴나스의 신데레시스처럼 양심은 하나님과 영혼의 합일에서 이루어지는 계시의 영역이자 그리고 행위라는 그의 관점을 주목하여야 한다고 본다. 한편, 어거스틴은 인간의 양심 유무를 넘어 항상 존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은총을 강조하여 우리에게 현실의 도덕률에 의지하는 한계를 극복하게 한다.

필자는 위의 각 양심론을 통하여 현실 속에서 종교적 양심의 자유를 공공성과 연관하여 실현하는 일은 최소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점이 요청된다고 본다. 첫째, 도덕적 본질의 회복을 위하여 양심과 행위의 간극을 줄이는 일이다.<sup>45)</sup> 어거스틴에게 양심은 하나님의 빛과 뜻을 따라 살아가는 행위를 인도하며, 아퀴나스에게 양심은 지식을 행위로 바꾸는 인식능력이다. 루터는 종교개혁에 있어서 ‘참된 믿음’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에 대한 책임과 연관이 된다고 보았다. 믿음은 수동적인 것이 아니며 창조적이며 활동적이고 힘이 있는 것이다. 마치 불에서 빛과 열을 분리할 수 없듯이, 믿음과 선행은 분리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내면적 양심과 양심 실현의 자유 사이에 틈이 있을 수 없다.<sup>46)</sup> 따라서 기독교의 양심론

45) 박우영은 종교와 법의 분리보다는 실천적 정의론에 입각하여 새로운 삶의 이야기를 통하여 양자간 간극을 줄이는 일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박우영, 『종교적영성과 법의 관계성에 관한 고찰』, 『기독교사회윤리』, 기독교사회윤리학회 제29집(2014), 266.

46) Martin Luther's Definition of Faith: An excerpt from "An Introduction to St. Paul's Letter to the Romans," Luther's German Bible of 1522 by Martin Luther, 1483-1546

을 내심의 자유에 국한하지 말고 실현가능한 자유가 되기 위하여 신앙의 공공성과 교회의 공교회성을 강조하여야 할 것이다.<sup>47)</sup>

둘째, 위의 공공성의 회복을 위하여 아퀴나스와 루터가 강조한 것과 같이 양심의 교육과 훈련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본다. 이는 가톨릭의 전통적인 교도권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의 내용이 형식적 논리를 넘어서 인간의 양심 안에 작동하는 윤리적 원리를 이해하고 의지를 훈육하는 신학의 사명에 관한 것이다. 신학이 하나님에 대한 학문이라면 신앙은 양심에 관한 실천원리의 틀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본다. 행위가 없는 값싼 은총과 끊임없는 생략의 죄와 위반의 죄에 대한 은총의 논리는 중세기의 면죄부와 같이 현시대의 면죄부라는 비판을 받게 될 것이다.

종교적 양심을 강화하는 것은 일차적으로 종교적 덕목에 속하지만 이를 지지하는 시스템은 종교 제도에 의하여 지지될 수 있다고 본다. 종교적 양심이 힘을 얻고 자유를 신장하기 위하여서는 양심의 실현이 형성되는 제도의 도덕률과 자연히 만날 수밖에 없다. 만일 개인의 종교적 양심과 종교제도의 공교회성이 하나가 된다면 양심 실현의 장에서 사회적 도덕률을 선도하고 변화와 개혁을 유도할 수 있지만 만일 양심이 단지 개인의 종교적 양심에 머무른다면 결국 종교적 양심이란 내면의 자유에 국한될 수 밖에 없다.

리처드 니버(Richard Niebuhr)는 교회의 가장 큰 위기는 거짓 복음으로 세상에서 승리하였다고 착각하면서 세상과의 타협을 인식하지도 못하는

---

Translated by Rev. Robert E. Smith from DR. MARTIN LUTHER'S VERMISCHTE DEUTSCHE SCHRIFTEN, Johann K. Irmischer, ed. Vol 63 (Erlangen: Heyder and Zimmer, 1854), 124-125. [EA 63:124-125] August 1994.

47) 교회는 본질상 '공적인 교회(에클레시아 푸블리카, *ekklesia publica*)'의 속성을 가진다. 공격 실체로서의 교회는 참여를 통하여 당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창호, 「교회의 공공성에 관한 신학적 윤리적 탐구」, 『기독교사회윤리』, 기독교사회윤리학회 제29집 (2014), 143-144.

‘위선’에 있다고 보았으며 따라서 교회의 과제는 ‘윤리적 자각’과 ‘개혁’에 있다고 보았다.<sup>48)</sup> 구원에 대한 교리의 차이를 강조하면서 역사 속에서 반복하여 온 교회 분열의 배경에 ‘교회 개혁’의 흔적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교회는 종교적 ‘계급주의’를 통한 교권의 권력화에 집착하였다면 과연일까? 따라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 도덕적 본질의 회복과 참된 회개에 이르는 자기 인식과 영성, 그리고 믿음과 행위를 하나로 묶는 책임의식의 회복에 교회가 앞장서야 할 것이다.

셋째, 신앙과 교회의 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하여서는 양심론을 통하여 현대 기독교에서 추구하는 영성에 대하여 참된 각성과 변화가 요청된다고 본다. 영성이 자칫 성장주의를 위한 물량의 수치로 치환되거나 외양적인 경건의 형식, 또는 회개의 심리적 순간만 강조되는 인간의 모습에 국한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염려가 있다. 올바른 영성은 하나님의 실재에 대한 존재론적인 충격이며 삼위일체를 통하여 드러나는 하나님과 인간의 인격적 관계를 지향한다. 올바른 영성은 찰나적인 회심이 아닌 인간 전 존재의 삶과 변화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며 죄에 대한 고백과 변화의 요청에 행동으로 응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인간 변화의 전 과정을 포함하기 때문에 영성은 인지-정서적 차원의 인간의 주관성과 상호관계에 대하여 주목하며 그리고 하나님과 우주 전체와 맺는 관계 방식을 통하여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 안에서 생태계의 책임이 따르는 실존적인 삶이 전제되는 것이다.

48) Richard Niebuhr, *The Kingdom of God in America* (Harper, 1959), 88. 리처드 니버(Richard Niebuhr)는 미국의 ‘대각성운동’을 주도한 청교도와 웨이커회교도의 ‘하나님 나라’ 이념에는 세 가지의 요소가 있다고 보았다. 첫 번째 요소는 신적주권에 대한 신앙의 확신이었으며, 두 번째 요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드러났던 하나님 나라는 특별하고 새로운 은혜의 경험으로 공동체를 인도하였다는 것과, 그리고 세 번째 요소는 권능 속에서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는 공동체의 삶의 방향에 영향을 주었다는 것이다. ‘주권, 은혜 소망으로 구성된 이 세 가지 요소들은 비록 한계가 있지만 나름대로 미국의 개신교를 인도한 중요한 신앙적 유산으로 이해하였다.

어거스틴과 아퀴나스, 그리고 루터의 양심론에는 결국 양심의 자리에서 이러한 올바른 영성의 회복을 기대하게 된다. 어거스틴이 강조한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 아퀴나스의 행위 원리가 되는 거짓이 없는 양심, 그리고 율법에 묶인 죽음의 행실에서 깨어나게 하는 루터의 실천적 양심론은 이 시대 필요한 영성의 원리가 된다고 본다. 육체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하여 신앙의 자유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낸 위의 양심론을 통하여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담대하게 섬기는 크리스천과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한다.

## 참고문헌

- 박우영, 『종교적영성과 법의 관계성에 관한 고찰』, 『기독교사회윤리』, 제29집 (2014)
- 이창호, 『교회의 공공성에 관한 신학적 윤리적 탐구』, 『기독교사회윤리』, 제29집 (2014)
- Augustine, *Confessions and Enchiridion*, newly translated and edited, trans. by Albert C. Outler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55)
- \_\_\_\_\_, “A Refutation of the Manichees,” *On Genesis*, trans. by Edmund Hill (New York: New City Press, 2002)
- \_\_\_\_\_, *The Trinity*, trans. by Edmund Hill (New York: New City Press, 1991)
- \_\_\_\_\_, *Expositions of the Psalm 1-32* (New York: New City Press, 2000)
- Aquinas, Thomas, *Summa Theologica*, URL=<http://www.basilica.org>.
- Clausen, Ian, “Seeking the Place of Conscience in Higher Education: An Augustinian View,” *Religions*, 2015, 6.
- Luther, Martin, *Assorted Sermons*.
- \_\_\_\_\_, *A Commentary on St. Paul’s Epistle to the Galatians*. [www.basilica.org](http://www.basilica.org).
- \_\_\_\_\_, *The Large Catechism*.
- \_\_\_\_\_, *Concerning the Sacrament of Baptism*.
- \_\_\_\_\_, *The Bondage of Will*.
- \_\_\_\_\_, *A Treatise on Good Works*.
- \_\_\_\_\_, *Concerning Christian Liberty*.
- \_\_\_\_\_, *First Principles of the Reformation or the Ninety-five Theses and the Three Primary Works*.
- Niebuhr, Richard, *The Kingdom of God in America* (Harper, 1959)
- O’Donovan, Oliver, *The Ways of Judgment* (Grand Rapids: Eerdmans, 2005)

104 『기독교사회윤리』 제33집

법률정보 판례,

<http://www.ccourt.go.kr>.

<http://glaw.scourt.go.kr>.

논문투고일: 2015년 10월 31일

심사개시일: 2015년 11월 11일

게재확정일: 2015년 12월 04일

---

• 국 문 초 록 •

---

양심의 자유는 내면적 자유로 이해되기 때문에 신앙과 연관이 되며 이를 기반으로 한 종교적 가치는 기본권에 영향을 미치는 주관적인 공권의 특성을 가지게 된다. 전통적 기독교 사상에서 종교적 양심의 자유가 일반 도덕률을 넘어서 공공 영역에서도 양심실현의 장이 형성되어 그 자유가 신장이 되었는지 아니면 제한되었는지 살펴보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 이 연구는 어거스틴, 아퀴나스, 루터의 신학적인 사상들을 바탕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탐구하고 있다. 첫 째, 어거스틴에게 양심에 대한 해석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고 보는데 그것은 각각 ‘경험으로서의 양심’, ‘타락한 양심’, ‘은총으로 회복된 양심’, 그리고 ‘구속의 과정을 거치는 양심’이다. 둘째, 아퀴나스에게 있어서 양심은 자연법에 근거한 보편적인 지식으로서 크게 네 가지로 나뉘질 수 있다고 보는데 그것은 각각 영혼의 본질과 연관된 도덕적 본질로서의 양심, 선의 물음에 적용되는 인식행위로서 ‘사려깊음(prudence)’과 연관된 도덕적 덕으로서의 양심, 행위로서의 양심, 그리고 이성의 명령으로서의 양심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루터에게 양심은 하나님의 은총이 머무르는 인간의 책임적 영역이 되면서도 스스로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여 보려는 인간의 자유의지가 작동하는 불신의 자리이다. 이와 같은 양심론을 통하여 기독교는 첫째, 도덕적 본질의 회복을 위하여 양심과 행위의 간극을 줄이는 일과, 둘째, 양심의 교육과 훈련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그리고 셋째, 현대 기독교에서 추구하는 영성에 대하여 참된 각성과 변화가 요청된다.

**주제어:** 종교적 양심, 공공성, 죄, 양심의 교육과 훈련, 실천적 영성

---